

저축의 사회화와 저축실태조사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 수 현(사우스다코다주립대학교 조교수)

I. 문제제기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함에 따라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은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증대된 관심을 보여 왔다(Venti, 2006). 저축은 은퇴 뿐 아니라 어떤 나이에서도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재무 자원을 갖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Brobeck (2008)의 연구에는 미국 내 대부분의 가계가 경제적 응급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재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계는 약 \$1,500이 필요하며 중산층은 약 \$3,000 정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산층의 절반 이상과 저소득층의 대다수인 70%가 재무위기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500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조사되었다.

낮은 저축률은 가계의 재무관리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의 복지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역시 Brobeck (2008)의 연구에 의하면, \$500의 여유자금도 갖지 않은 가계들은 매달 공과금을 내거나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비상자금이 있는 가계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었다. 비상저축금의 부재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계에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는 불면증 같은 또 다른 건강 문제를 쉽게 야기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미국 중서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모를 통한 저축의 사회화, 저축에 대한 태도와 방법, 저축을 방해하는 요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저축실태조사로써 본격적인 다변량 분석에 앞선 예비 연구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였다.

<연구문제 1> 미 사우스다코타주의 성인 근로자들의 부모를 통한 저축의 사회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 사우스다코타주의 성인 근로자들의 저축 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 사우스다코타주의 성인 근로자들의 저축을 방해하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4> 미 사우스다코타주의 성인 근로자들의 부모를 통한 저축의 사회화는 저축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선행연구고찰

미국 가계의 저축률은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 (Devaney, Anong, & Whirl, 2007). 예를 들어, 1989년의 미국 개인 저축률은 7.3%였으나 십년이 지난 1998년도에는 4.3%로, 그리고 2008년에는 1.8%까지 감소하였다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 전반적으로 개인 저축률은 지난 20년간 5.5%p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저축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를 행동 심리학적 이유에서 찾고 있다 (Venti, 2006). 한 가지 요인은 재무 정보가 손쉽게 구할 수 없거나 이해하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비록 소비자들이 저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간 선호의 불일치성, 타성, 또는 지체 등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에서 계획이 실현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O'Neill, Xiao, Bristow, Brennan, and Kerbel (2000) 에 따르면 결단력, 훈련, 지식, 낙관주의 같은 개인적 자질, 그리고 목표나 계획 같은 행동적 요인이 재무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Lunt and Livingstone (1991)은 정기적인 저축과 저축 총량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저축 총량은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만, 정기적인 저축은 심리학적 변인에 의해 유의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무관리행동에서 부모의 영향, 어릴 적 습관 등 사회화와 관련된 변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Cho, Gutter, Kim, & Mauldin, 2012; Gutter, Garrison, & Copur, 2010; Kim, LaTaillade, & Kim, 2011).

III. 연구방법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농업연구소 (USDA's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에서는 개인의 재정안정을 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이 NIFA 의 지원을 받아 미국 내 13개 주가 공동 연구하는 North Central -1172 프로젝트 팀은, 개인과 가족의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전국적 연구를 2008년에서 2013년에 걸쳐 진행 중에 있다. 이 과제의 최종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보험 여부, 재무지식, 재무사회화, 재무관리 행동, 저축에 대한 의견, 돈에 대한 태도, 충동적 성향, 자기 효능감, 물질주의, 위험 감수도 등을 포함하여 총 7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조사자의 관심변수를 첨가하여 수정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를 위한 자료는 사우스다코타 주 내의 아홉 개의 전문대와 종합대학교의 교수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로 소요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3월에서 5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539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결측값이 있거나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43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42세였으며, 평균 가족 수는 2.6명이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기혼자였으며, 여성응답자가 남성보다 더 많았다. 또한 대다수가 전일제 근로자였으며, 모기지를 포함한 자가 소유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대학 및 대학원 교육 이상이 절반 이상이었고, 지역 특성상 백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들의 저축 실태를 살펴보면, 체크계좌나 양도성예금증서에 평균 \$7,230, 증권 및 채권에 \$320, 투자계좌에 \$7,350, 교육용 보험 등에 \$700, 개인은퇴계좌 (IRA)에 \$5,030, 직장 은퇴계좌에 \$6,600, 그리고 채무 상황에 \$5,800 정도를 쓰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표 1>에 나와 있다.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43)

		빈도 (평균)	퍼센트 (표준편차)
나이	나이	42.48	13.19
가족 수	가족 수	2.56	1.66
18세 이하 자녀 수	18세 이하 자녀 수	0.65	1.15
결혼 유무	기혼 또는 동거	296	66.8
	미혼	108	24.4
성별	남자	131	29.6
	여자	276	62.3
교육수준	고졸 이하	16	3.6
	대학 중퇴	36	8.1
	2년제 및 전문대학 졸업	25	5.6
	4년제 졸업	118	26.6
	대학원 졸업	210	47.4
연수입	\$0 - \$20,000	35	7.9
	\$20,001 - \$40,000	75	16.9
	\$40,001 - \$60,000	62	14.0
	\$60,001 - \$80,000	76	17.2
	\$80,001 - \$100,000	54	12.2
	\$100,001 - \$120,000	52	11.7
	\$120,000 - \$140,000	15	3.4
	\$140,000 초과	26	5.9
인종	백인	278	62.8
	백인 이외	165	37.2

2. 저축행동의 실태

저축 행동의 실태는 어릴 적 경험과 부모의 사회화, 정보수집방법, 지난 해 수입과 지출의 비교, 그리고 저축을 하기 힘든 이유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표 2>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어릴적 부모와 재무행동 또는 저축에 대하여 대화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저축 행동에 대해 물었을 때(<표 3> 참조),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모 모두 혹은 한쪽 부모가 저축을 했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4 이상이 어릴 적 저축계좌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 집단의 저축의 사회화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표4> 참조). <표 5>에서 보면, 저축에 대한 정보 수집 매개로써 가족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매체, 재무상담 / 설계사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이 저축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표 6>에 있는 지난 해 지출과 수입의 비교를 묻는 설문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절반 이상이 지출이 수입보다 적었다고 하여, 저축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여윌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비싸져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하여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예비비와 비상자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표 7> 참조).

이를 토대로 조사자들의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을 고찰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에 나와 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부모의 사회화 관련 변수, 그리고 재무 또는 지급 의무들은 정기적 저축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18세 이하 동거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alimony 등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확률이 낮았다. 이와 유사하게 학자금 빚이 있는 경우와 신용카드 빚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정기적 저축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변수에 관해서는 어릴 적 저축계좌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기적으로 저축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어릴 적 부모와의 대화

	빈도	퍼센트
저축의 중요성	261	58.9
가족의 지출 계획	67	15.1
본인의 지출	248	56.0
신용 사용	130	29.3
재무 주제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	142	31.1

<표 3> 부모의 저축 여부

	빈도	퍼센트
둘 중 아무도 저축하지 않았다	92	20.8
둘 중 한분만 저축하고 계셨다	100	22.6
둘 다 저축하고 계셨다	251	56.7

<표 4> 어릴 적 저축 계좌 소유 여부

	빈도	퍼센트
저축 계좌 소유	330	74.5
저축 계좌 비소유	113	25.5

<표 5> 저축 정보 수집 방법

	빈도	퍼센트
가족	317	71.6
친구	160	36.1
방송매체	220	49.7
재무설계사/상담사	178	40.2
직장	124	28.0
지역 내 강좌	24	5.4
정규 (학교) 수업	115	26.0

<표 6> 지난 해 저축여부

	빈도	퍼센트
수입이 지출보다 적었다	69	15.6
수입과 지출이 같았다	99	22.3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다	268	60.5

<표 7> 지난 몇 년간 저축을 하지 못한 이유

	빈도	퍼센트
여유티 없어서	125	27.4
공과금 또는 신용카드 지출	42	9.2
예상치 못한 지출	124	27.2
병원비 지출	99	21.7
생활비 인상	125	27.4
큰 지출이 있었거나 예상되어서	87	19.1
교육비 지출	108	23.7
직장을 잃었거나 임금이 충분치 않아서	53	11.6
생활 변화 (출산, 장례, 결혼, 이혼 등)	36	7.9
자연재해 등	11	2.5

<표 8>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t. Error	Sig.
상수항	.385	.175	.028
나이	.000	.002	.744
18세미만 자녀수	-.058	.022	.008
성별	-.001	.050	.978
소득	.072	.015	.000
교육수준	.002	.023	.923
인종	.137	.105	.190
대화-저축의 중요성	-.066	.063	.301
대화-가족의 소비계획	.003	.066	.968
대화-본인의 지출	.030	.058	.611
대화-신용사용	-.003	.056	.960
자녀 부양 의무	-.306	.148	.039
자동차대출금 의무	-.038	.047	.417
학자금	-.185	.053	.001
신용카드빚	-.180	.047	.000
부모의 저축여부	.053	.034	.117
어릴 적 저축계좌소유	.145	.057	.011
정보원-부모	-.017	.065	.790
R ²		.24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저축에 관련된 행동학적, 심리학적 변인들을 알아내기 위한 예비조사의 단계로서 부모의 영향에 의한 저축의 사회화와 저축여부, 저축을 방해하는 요인 등에 대한 빈도분석이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저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화영향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시행되었다.

부모의 사회화 영향은 어릴 적 부모가 재무관리 관련 주제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였는지, 부모가 저축을 하였는지, 어릴 때 저축계좌를 소유했었는지, 또 저축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서 얻는지 등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들 중 어릴 때 저축계좌 소유여부만이 조사대상자들의 정기적인 저축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른 요인보다도 어릴 적 행동 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까지 유사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풀이될 수 있으며, 부모의 사회화 영향은 대화나 모범적인 행동보다는 아이들에게 일찍 그 행동양식을 터득하여 습관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저축 행동을 비롯한 많은 재무관리의 영역이 개인의 행동, 심리학적 영향을 받음이 최근 밝혀지고 있다. 이 연구 과제와 후속 연구로 저축행동의 국제비교연구를 제안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저축 행동 비교 연구가 양국 국민의 재무 행동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Brobeck, Stephen. 2008. *Understanding The Emergency Savings Needs of Low- and Moderate-Income Households: A Survey-Based Analysis of Impacts, Causes, and Remedies*.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 National Economic Accounts, Table 2.1. <http://www.bea.gov/national/nipaweb/TableView.asp?SelectedTable=58&ViewSeries=NO&Java=no&Request3Place=N&3Place=N&FromView=YES&Freq=Year&FirstYear=1989&LastYear=2008&3Place=N&Update=Update&JavaBox=no>.
- Cho, Soo Hyun, Michael Gutter, Jinhee Kim, and Teresa Mauldin. 2012. The Effect of Socialization and Information Source on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among Low- and Moderate-Income Adults.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0(4): 417-430.
- Devaney, Sharon A., Sophia T. Anong, and Stacey E. Whirl. 2007. Household Savings Motiv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1 (1): 174-186.

- Gutter, Michael S., Garrison, S., and Zeinup Copur. 2010. Social Learning Opportunities and the Financi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Family &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8(4): 387-404.
- Kim, Jinhee, Lataillade, J., and Haejung Kim. 2011.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s' Financial Behavio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2(4): 668-679.
- Lunt, Peter K., and Sonia M. Livingstone. 1991.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Saving: Comparing Recurrent and Total Saving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 (4): 621-642.
- O'Neill, Barbara, Jing J. Xiao, Barbara Bristow, Patricia Brennan, and Claudia M. Kerbel. 2000. Successful Financial Goal Attainment: Perceived Resources and Obstacl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1 (1): 1-12.
- Venti, Steven F., ed. 2006. *Choice, Behavior and Retirement Sav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저축의 사회화와 저축실태조사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 세 정(상명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가계저축의 요인을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영향요인을 다루고 있다. 미국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는 하나, 가계저축행태를 다루고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착실히 논함으로써 향후 비교연구나, 국내연구로의 확장적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저축에 대한 논의는 그간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으나, 최근 재무관리 연구들이 가계보다는 개인의 행태에 초점이 주어지는가 하면, 재무관리의 주요 요소인 저축행태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재무설계 관련 현황이나 도구 개발에 중심이 주어짐으로서 다소 등한시 되어진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축의 사회화라는 요인, 그리고 정기저축과 기타저축을 구분하여 다룸으로써 관련 연구에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저축사회화와 등을 다룸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와 행태가 개인의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되는 만큼 관련 이론들의 탄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reader가 가족학적 background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관련된 이론들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서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축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다루게 되는 변수들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타당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빈도와 평균, 퍼센트와 표준편차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제시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수정해야 할 것이며, 이후 저축행태들은 descriptive하게 일관성없이 제시되고 있다. 다변량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분석, 제시하던지 아니면 변수의 성격에 따라 빈도분석 표들이 제시되어야 저축행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의 제목이 적절하지 않으며, <표 7>의 경우 복수응답임을 표기해야 할 것이다. <표 8>에서 종속변수인 저축행태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나이의 경우 B값이 000인데 이에 대한 표기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다변량 분석에서 변수들의 성격(연속변수인지 아닌지), 비교집단의 불명확성들이 드러난다. 더미변수인지 등.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릴 적 행동습관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까지 유사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풀이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견하였다. 저자도 이야기했듯이 관련연구들이 국내에서 진행될 요성이 있고, 또 국제적 비교 또한 우리의 저축행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